고규홍의 '나무 생각'

벽오동과 함께 대나무를 심은 뜻은

벽오동은 이름만 봐서는 '오동나무'와 가까운 식물처럼 생각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오동나무와 친연(親緣) 관계가 없는 나무다. 오동나무가 현삼과에 속하는 식물인 것과 달리 벽오동은 그와는 전혀 다른 벽오동과의 나무다. 하지만 벽오동 잎이 우리나라의 나무 가운데 잎 한 장의 크기가 가장 큰 나무인 오동나무 잎을 닮았다는 사실이 옛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다.

벽오동이나 오동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잎이 가장 큰 나무다. 잎 한 장의 길이나 너비 모두 25센티미터쯤까지 자란다. 어른 손바닥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가릴 만큼 크다는 점에서 두 나무의 잎은 비슷하다. 그러나 오동나무와 벽오동은 꽃과 열매가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줄기 껍질의 빛깔에 있다. 오동나무의 줄기는 암갈색인데 벽오동의 줄기는 초록빛이 강한 청녹색이다. 근대식물 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잎이 오동나무처럼 크고, 줄기 껍질에서 푸른빛이 난다는 이유에서 이 나무에 푸를 '벽'(碧) 자를 앞세워 벽오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벽오동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심은 나무다. 태평성대를 이룰 지도자인 '성천자'(聖天子)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며 심은 나무가 바로 벽오동이었다. 예로부터 성천자의 상징은 중국 전설 속의 새인 봉황이었다. 봉황을 기다리는 건 곧 좋은 지도자를 기다린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봉황을 맞이하기 위해 벽오동을 심어 키운 것이다. 봉황이 이 땅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봉황이 깃들 보금자리인 벽오동을 키우며 긴 세월 동안 어진 군주를 기다렸다. 결국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건 곧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백성의 염원이었다.

더 평안한 세상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벽오동과 함께 대나무도 심었다. 대나무를 심은 건 봉황의 먹이를 마련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봉황은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 그런데 대나무는 여느 식물들처럼 해마다 봄이면 꽃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는 식물이 아니다. 대나무는 60년 만에 한 번씩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뒤에 열매 맺고 죽는다. 거의 사람의 한 평생에 맞먹는 긴 시간을 한 생의 주기로 살아가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식물이다. 대나무가 어떻게 이토록 긴 시간의 흐름으로 살아가는지는 현대 첨단과학으로도 여전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다.

벽오동을 많이 심고 잘 키워서 보금자리를 마련해도 먹이 없는 곳에는 봉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나무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 봉황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옛사람들은 대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학수고대했다. 빨라 봐야 60년에 한 번 맺을까 말까 한 열매지만, 봉황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벽오동 못지않게 봉황의 유일한 먹이인 대나무도 온 정성을 기울여 키웠다. 이처럼 봉황을 기다리며 사람들은 벽오동과 함께 대나무를 심어 키웠지만, 세월 지나며 전설은 스러져 갔고, 따라서 대나무 이야기도 벽오동에 묻혀 잊혀졌다.

경상북도 의성의 비봉산 아래에는 '죽림마을' 즉 '대숲 마을'이라고 불리는 아늑한 마을이 있다. 마을 이름이 아예 '대숲'이 될 만큼 대나무를 많이 심은 건 마을 뒷산이 봉황이 날아오른다는 뜻의 '비봉산'이었기 때문이다. 태평성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비봉산에 찾아든 봉황이 오래 머무르도록 봉황의 먹이인 대나무를 수굿이 심어 키운 것이다. 한 그루 두 그루가 숲을 이룰 만큼 긴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기원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태평성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며 오래 준비해 내공을 갖춰야 한다. 벽오동을 심고 대나무가 열매를 맺는 긴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지도자도 스스로 차분하고 오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저마다 금방 이 땅의 태평성대를 이룰 듯이 외장치는 허장성세가 뉴스의 첫 페이지에 오르내리는 시절이 시작됐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긴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기원한 옛사람들의 '사람살이'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눈 건강과 선글라스

조 형 진
보라안과병원 원장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난 후 의전 결례 논란을 일으켰다. 선글라스 때문이었다. 영국 언론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채 여왕을 대면했다는 이유로 왕실 의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에도 선글라스를 즐겨 쓰고 있고, 이날 런던의 기온은 29도로 햇살이 뜨거운 날씨였다. 방문국 의례를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과의사 입장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은 눈 건강 측면에서는 바른 행위다.

여름의 태양은 뜨겁고 강렬하다.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파장은 피부에 깊게 침투하는 UVA와 피부 겉에 화상을 입히는 UVB로 나뉜다. 이 파장이 각막·망막·수정체 등에 흡수되면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를 손상시켜 광각막염, 백내장, 황변변성, 익상편과 같은 안 질환을 유발한다.

자외선에 눈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눈에 통증이 오는 광각막염은 각막과 결막에 입는 화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마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은 통증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며, 심각한 고통이 느껴진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고 점차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노인성 안과 질환이지만 자외선이 백내장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다. 수정체에 자외선이 닿으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손상시키고 눈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노화로 인해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눈이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망막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망막을 손상시켜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익상편은 눈 흰자위 쪽으로 결막의 섬유 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눈 안쪽 결막에서부터 자라는 질환이다. 익상편은 크기가 커질수록 안구건조증이 동반될 수 있고, 각막이 눌리면서 난시가 증가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특히 발병 빈도가 높다. 이렇듯 자외선은 다양한 안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선글라스 착용이다. 평소 자외선으로 인한 눈 노화와 질환을 예방하려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외출 시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해 자외선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햇빛이 강렬한 여름철에만 자외선을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주 흐린 날씨를 제외하고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으로 눈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선글라스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모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선글라스 선택 시 자외선 차단 코팅 유무와 UVA, UVB를 차단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글라스의 색이 짙으면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색깔이 짙을 경우 오히려 시야가 어두워져 더 잘 보기 위해 동공이 확장돼 자외선이 더 많이 침투할 수 있어 눈동자가 들여다보일 정도인 75~80% 농도의 렌즈를 고르는 것이 좋다. 선글라스를 쓴다고 자외선을 100% 피할 수는 없다. 선글라스 옆이나 위를 통해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렌즈가 큰 선글라스나 고글 형태로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는 선글라스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소나 용도에 따라 눈을 보호하는 렌즈 색상도 달라진다. 햇빛이 강한 날의 운전자는 갈색 렌즈, 바닷가나 스키장에서는 시야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녹색 렌즈, 어두운 작업장이나 야간 운전자에게는 주황색 렌즈, 사격이나 레저용으로는 사물의 움직임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황색 렌즈가 좋다. 간혹 보라색이나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색은 자외선 차단에 큰 효과가 없다.

대다수가 선글라스를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하지만, 선글라스는 눈 건강 필수품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유념하고 외출 시에 꼭 착용하길 바란다.

기 고

리더가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

박 안 수
말뫼아카데미 원장·경제학박사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대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전 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현직 도지사 등 무려 아홉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런가 하면 제1 야당에서는 젊은 당 대표가 당선되어 연일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불모지인 우리 지역에서도 두 자리 숫자에 근접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자 각 정당에서 당내 유력 인사는 물론 전직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에게 입당 러브 콜(love call)을 연신 보내고 있다. 대선 흥행과 자당 예비 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다. 매주 쏟아지는 여론조사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선호도와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단 여당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이고, 야당은 정권 교체에 당의 모든 운명을 걸고 사투하는 형국이다.

국민 누구든 대통령 피선거권만 있으면 대선에 나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다. 즉 예전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지만, 우리는 많은 정치·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고려와 조선이 단일 성(姓)으로 500년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제왕의 학습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세자를 책봉하고, 수없는 학습을 통하여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키웠던 것이 왕조의 맥을 이은 동력이었다고 진단한다.

조선 27명 제왕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왕으로 아마도 세종대왕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다. 한글 창제 해례에 '백성을 어여삐 여겨' 라는 말이 나온다. 어여삐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사랑하다' 뜻으로 해석되는데 통치의 중심에 언제나 백성을 중심에 두었다는 방증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이라는 책에서 최고 지도자의 덕목으로 그 시대성에 부합하고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통치에 대한 운과 타인의 호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6년 동안 통일 독일 총리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치 철학과 리더십을 우리도 한번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 집권한 지도자가 명예롭게 은퇴한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인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그녀는 해냈다. 어떤 친척도 공직에 임명하지 않았으니 측근 비리가 없었다. 기자회견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녀의 성품을 보여준다.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데, 다른 옷이 없는 겁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우리도 앙겔라 메르켈 같은 지도자를 가질 수는 없는 걸까.

지금 우리 국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덕목은 있다. 자신에게 고도로 엄격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바탕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경제·안보·사회·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과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읽어내고 그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언제나 민본(民本)을 중심에 두는 품격과 자질을 가진 지도자를 국민은 희망한다.

社 說

집중호우 피해 속출 장마 대비 더욱 철저히

장마 시작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사흘 사이에 6개월간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말 그대로 '물 폭탄'이어서 주민들이 미처 대비할 틈조차 없었다.

지난 5일부터 7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누적 강우량은 해남 현산 532㎜, 장흥 관산 464.5㎜, 진도읍 457.7㎜, 고흥 도양 417.5㎜ 등이었다. 해남 등 일부 지역은 사흘 사이 내린 비가 지난 6개월간의 누적 강수량을 넘어섰다. 한 시간 동안 69.5㎜가 내린 진도와 63.4㎜를 기록한 해남 등은 시간당 최다 강우량까지 경신했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랐다. 광양시 진상면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 두 채가 매몰됐고, 80대 여성 한 명이 숨졌다. 해남 삼산면에서는 계곡물 범람으로 침수된 주택에서 일가족 다섯 명이 고립돼 60대 여성이 숨졌다. 또한 진도·장흥·해남 등에서 주택 495동이 침수돼 이재민이 속출했고, 농경지도 2만 4644㏊나 물에 잠겼다.

손 쓸 틈 없는 재해였지만 대응 과정에서 허점도 노출됐다. 광양 산사태의 경우 발생 지점 위쪽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수차례 토사 유출·붕괴 위험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기상청 예보 논의 과정에서도 예상 강우량 '최다 500㎜ 이상'과 '300㎜ 이상'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긴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한 이번 장마는 게릴라성 호우나 야행성 폭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비가 내리면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사태, 하천 범람, 침수 등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주시와 시민들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범서명운동에 나섰다. 양질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은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에 비해 수익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에서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했다.

부지까지 결정된 광주의료원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제는 예타 통과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전에 예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광주의료원도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1999년 예타 제도 시행 이후 통과한 전례가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원은 일부 취약 계층의 의료시설을 넘어 시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 떠오르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는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예타 문제'로 2~3년의 시간을 소요한다면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 취지를 깊이 인식해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는 국토균형발전 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 광주시 역시 공공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향무정

드라마 '전원일기'가 다시 뜨고 있다.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방영된 최장수 드라마(1088부작)가 요즘 재방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50~60대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20·30대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알게 해 준다.

1980~1990년대 열악한 농촌의 현실과 소탈하고 정겨운 농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전원일기는, 당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온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이제는 고향이라는 단어마저 생경해졌지만 도시가 삭막하고 냉정해질수록 농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고향은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사라지고 있다. 사람은 온통 수도권에 몰리고, 좀 잘나가는 기업들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다. 향토 기업들은 쇠망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어렵고 쇠락하는 고향에 성공한 지역 출신 기업인들이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모습은 귀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는 출향 인사들을 찾아가 투자를 호소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이 여수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부 특혜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가 반긴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충분한 공감대 없이 1184실에 달하는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시를 짓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논란이 되자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혀 입살에 올랐다. 지역 각계가 설득해 잠정 중단을 철회하게 하고, 레지던시 건립 계획이 최근 조건부 가결되면서 미래에셋은 당초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대표가 고향에 보탬이 되고자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를 했든, 그저 높은 수익을 노리고 대규모 투자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계획 변경을 관철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면, 그만큼 지역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금이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